

〈경작유적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토론문

유 병 록
우리문화재연구원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은 토론자 역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생산’ 적 측면보다는 ‘소비’ 적 측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늘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졌었다. 발표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경생산유적을 직접 조사하고 연구한 대표적 연구자로서 생산부분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역시나 본 토론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적 측면을 고고학적방식으로 이해하고 논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발표자 역시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그러한 논의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1. 발표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앞부분에서의 남강유역 취락들에 대한 성격분류와 이를 바탕으로 뒷부분에 곡물을 매개로 한 취락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앞부분에 남강유역 취락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와 발표자의 구분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특히 중심취락부분에 있어 5가지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유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5가지 각 요소별 多少는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가령 평저동유적처럼 대규모경작지에 비해 주거지 숫자는 극소수)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2. 곡물의 생산과 소비를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량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유적에서 출토된 곡물의 종류만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탄화곡물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많지는 않겠지만 한 유적내 곡물별 출토양에 대한 상대비교가 전혀 되지 않아 가령, 쌀과 기타 잡곡과의 실제 재배 비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유적출토 인골에 대한 안정동위원소측정결과 청동기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도 쌀이 主食으로 활용될 정도가 아니라는

연구(이준정 2011, 31-66쪽)대로 혹시 이를 유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한지 궁금하다.

3. 본 발표문의 핵심은 기존 수공업제품(석검, 적색마연토기, 玉, 꼬막제장식품 등)을 통한 남강유역의 중심취락과 주변(일반)취락간 교환이나 분업과 같은 관계망(네트워크)에 대한 일련의 연구(고민정 2010 외; 쇼다신야 2009 등)와 같이 곡물도 그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곡물도 기존 수공업제품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잉여생산물 혹은 특수목적생산물이 될 수 있느냐이다. 중심취락인 대평리취락의 경우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지고는 있지만 발표문에서도 지적하듯이 輪作의 문제점으로 인한 실제 경작면적의 제한문제 뿐 아니라 당시 곡물수확량이 과연 주변 취락까지 보급할 정도의 잉여생산물이 있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대평리취락내 경작지면적에 비해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고상건물이나 옥방 1지구 16호와 같은 수혈¹⁾이 210기가 넘는 주거지와 당시 상주인구가 수 천에 달했을 가능성이 제기(이상길 2002)된 것에 비해 숫자가 극소량이라는 점에서 당시 거주인구의 自給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오히려 주변취락에서 중심취락을 위해 평거동유적과 같이 생산취락의 역할²⁾을 하였을 것이다. 한 유적내 주거지와 무덤(의례)이 적당하게 확인되는 경우나 무덤 중심인 유적인 경우에 대평리유적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 소규모취락들의 경우 생계는 자급자족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표 11>의 주변취락의 ‘소비전문취락’ 상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업제품의 경우에도 엘리트집단 자체가 소비집단(고민정 2009, 97쪽)이며, 곡물 저장과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대형 호형토기, 수혈, 고상건물이 환호 안쪽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엘리트집단의 통제 가능성이 보여지는 바 중심취락 자체가 또한 곡물의 소비집단(김장석 2008³⁾)이라 할 수 있다.

4. 위 3번과 연동되어 중심취락에서 하위취락과도 같은 주변취락에 곡물을 분배할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수공업제품을 배분함으로써 서로간 상하관계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곡물을 제공(상납?)받거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1) 대평리취락(옥방유적과 어은유적)내 고상건물은 12기에 불과하며, 수혈은 426기가 집계(고민정 2009, 94쪽)되지만, 수혈의 대부분이 깊이가 30cm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곡물저장시설로 보기 어렵다.

2) 평거동유적은 초전·초장동유적의 배후생산취락일 가능성이 크다.

3) 호서, 호남지역의 송국리단계 취락을 소비전문유적, 일반유적, 저장(수혈중심)전문유적으로 나누고 송국리유적과 같은 중심취락은 소비전문유적으로 분류한다. 저장전문유적은 전적으로 중심취락을 위한 유적으로 소비전문유적에서 통제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이번 주제와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대평리취락은 ‘都市’로의 가능성(이상길 2002)에 거론될 정도로 다양한 유구와 많은 인구, 전문공인, 엘리트집단, 환호와 같은 대규모공사 수행능력, 교역을 위한 교통망 등 일반적인 도시의 개념에 가까운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이 개념에 대규모 경작지는 고려되지 않는 편인데, 이러한 대규모 소비집단을 위한 배후시설로서 경작지를 완비한 ‘한국적 청동기시대 도시’로 규정⁴⁾할 수는 없는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8,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경남 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논집』 제 1호.
- 고민정, 201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구조와 성격」, 『嶺南考古學』 54.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 제67집.
- 裴德煥, 2008, 「嶺南 南部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考古美術史學課博士學位論文.
- 쇼다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李相吉, 2002, 「우리는 왜 남강유역의 유적에 주목하는가」,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 이준정, 2011, 「作物 섭취량 변화를 통해 본 農耕의 전개과정 -한반도유적 출토 人骨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제73호.

4) 배덕환은 일본 야요이시대의 도시적 요소를 대평리유적에 적용한 결과 ‘농업에 입각한 도시(오스트리아 고고학자 R. Fletcher, 1995)’로 규정하였다(2008, 154-155쪽)